

지금까지 적은 혜능의 일대기는 (육조단경)에 의거한 것이다. 위거(渥據)라는 지방장관의 요청으로 혜능의 사적과 설법을 정리한 것인데, 가위 선종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명작이다. 편집과 구성만 일별해도 선의 독특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전까지 혜오던 스풀라적 경문주석이 아니라 구도의 여정과 삶의 진실을 대중강연 형식으로 풀고 있다. 옛에서도 지적한 바이지만 그는 변방의 오랑 개에게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는 사람이었다. 경전을 읽지 못하면서도 경전의 정신을 직관할 수 있었던 드문 인물! 장작을 때다 가 우연히 들은 금강경에 발심한 것이나, 신수의 시를 통해 듣고도 그 수준을 가능한 일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知者不言 言者不知)"고 썼다. 그 경구에 혜능처럼 극적으로 들어맞는 유형은 후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이 새로운 불교운동의 개척프레이즈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혜능 선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돈오의 제창이다. 신수와 혜능의 갈림길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개운사 무차대회를 시발로 불거진 남북종의 대립은 신수와 혜능 당대

한형조 무문관 탐방

(38)

육조의 의발 ⑦

육 해야지 (莫使惹惹矣)

신수는 이 길을 철저히 밟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측천후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지 했다.

혜능은 신수의 길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목표를 더 멀리 잡았다. 그는 신수처럼 "마음을 가라 앉혀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밖을 제어하고, 마음을 닦아 안으로 깨달음을 구하라"고 권하지 않았다. 마음은 본시 자유로운 것이라 안에도 밖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그

가 처음 저지거사에서 들은 <금강경>의 권고처럼 근본의 진실은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應無所住而生其心)" 곳에 있다. 그러자면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선과 악에 대한 고착은 무시이래의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낳은 것이다. 이 근원적인 방해물을 타



그림·이준석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모든 비밀은 너에게 있다"

의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혜능과 신수의 개인적인 유대와 존경심은 남달랐다. 그 점을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다. 신수는 일찍이 측천후후의 궁중에서 높은 지위와 대접을 받고 있었다. 705년경 당시 왕이었던 중종은 남방의 지도자인 혜능을 궁중에 초청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신수가 동문인 혜안과 더불어 혜능이아말로 5조의 의발을 계승한 진정한 지도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혜능도 아버지처럼 선배 신수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잊지 않았다고 짐작한다.

그럼에도 신수의 정신과 혜능의 정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 혜능은 그것을 단적으로 대승선(大乘禪)과 최상승선(最上乘禪)이란 말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신수의 가르침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자질을 이룰기 위한 것인데 비해, 자신의 그것은 드물게 탁월한 자질을 가진 인물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수는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일었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 즉 "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뜻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지니,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

파해야만 영원의 평화와 안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타파는 내적 외적 방해물에 덮이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니 정신분석학이 일러주듯 아는 것이 곧 해방이다. 그래서 혜능은 말한다. "네 본성을 직각적으로 파지하라(直指人心 見性成佛)." 이 표어 이후 선은 "네가 누구냐"는 소크라테스적 물음으로 환원되었다.

이 공간에서 그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바위 위에 던져진 의발이 꿈쩍도 않자 혜명은 비로소 알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였다. 흡사 성게나 성배를 마주한 기독교도처럼. 예송이 오랑개의 위엄 앞에 경건히 무릎꿇고 진리를 구경하며 혜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선(善)도 악(惡)도 생각않을 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혜능은 오랜 아픔을 겪고 그의 은몽은 꿈에 흠뻑 젖었다. 혜명이 울며 혹은 다른 가르침이 없느냐고 묻자 육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게는 비밀이 없다. 모든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돈오의 진실, 선의 초전설법(初轉說法)이 이렇게 펼쳐졌다. 밖으로 밖으로만 펼쳐졌던 불교가 이제 그 빛을 안으로 쬐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迴光返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육년동안의 고행을 끝낸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었을때 맨 처음 확인된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수많은 근본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도를 깨닫고 칠일동안을 심이연기에 대하여 수미일관하게 관찰하셨다고 전해진다. 대승경전에서는 <화엄경>을 설했다고 하지만 연기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준말로 모든 것은 원인(因)과 조건(緣)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일어난다(生起)는 뜻인데 여기에는 꼭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이 아닌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생명관이며 우주관이라고 한다. 연기의 법

12연기

을 떠난 존재란 없는 것이다.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이 되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나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나물게 해서는 안된다. 그 가 처음 저지거사에서 들은 <금강경>의 권고처럼 근본의 진실은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應無所住而生其心)" 곳에 있다. 그러자면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선과 악에 대한 고착은 무시이래의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낳은 것이다. 이 근원적인 방해물을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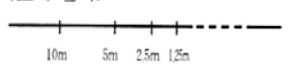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41)

역리의 극복

김용운

고대 희랍에는 철학자 제논이 제기한 패러독스(역리)가 있다. 발이 빠른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린다.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미터 앞서 있다고 이 둘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출발했다. 아킬레스가 처음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당도할 때는 이미 거북이는 5미터 앞에 있다. 다시 아킬레스가 그 자리에 당도할 때는 거북이는 2.5미터 앞에 있다. ... 계속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뒤쫓지만 그때마다 거북이는 비록 거북이는 짧아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앞에 있다. 따라서 아킬레스는 아무리 뛰어도 거북이를 앞지를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모순이 없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앞에 가는 사람보다 뒤쫓는 사람의 발이 빠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앞지르게 된다.



이 논리는 작센은 유한으로 나누고 그 범위에서 생각해 갈 때는 제

法數로 배우는 불교

(48)

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기 때문에 저것이 멀한다는 것이니 무명(無明: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행(行: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識: 의식작용)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名色: 정신과 육체)이 있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입(六入: 눈·귀·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사와 우비고뇌 모두가 사라지게 되느니라"고 설하셨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다음의 무엇이 있

생기 소멸현상의 원인과 조건

"연기를 보는자 부처를 본다"

코·혀·몸·뜻의 여섯 감각기관)이 있고 육입으로 인하여 촉(觸: 대상 세계와의 접촉)이 있고 촉으로 인하여 수(受: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가 있고 수로 인하여 애(愛: 구하려는 욕망)가 있고 애로 인하여 취(取: 늘어 붙으려는 집착)가 있고 취로 인하여 유(有: 존재하게 될 근거)가 있고 유로 인하여 생(生: 태어남)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사(死: 죽음)와 우비고뇌가 있게 되었느니라. 수행자들이여, 그러므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고 육입이 사라지면

는 것을 유전연기(流轉緣起)라 부르고 무엇이 사라지면 다음의 무엇이 사라지는 것은 환멸연기(還滅緣起)라 부른다. '유전'이란 흐르고 구름다는 의미로써 중생이 혼란과 미혹 속에서 괴로움에 휩쓸리는 삶의 과정을 가리키고 '환멸'이란 그 유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유전은 중생의 길이고 환멸은 부처의 길인 셈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길을 버리고 부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무명을 없애면 모든 게 가능한 것이다. 중생이 일으키고 받는 반복되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뇌 등의 온갖 고통은 무명을 명(明: 밝은 지혜)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해결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방법을 우리는 십이연기 가운데 촉·수·애·취에서 찾을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부딪치는 촉감과 느낌, 그리고 일어나는 욕망과 애착을 항상 관찰하는 수행을 통하여 그것들의 본질이 허망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다. 요즈음 보면 연기설을 마치 상대논리로 퍼나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든지 자연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이 있다든가 사업주가 있으니까 고용자가 있고 고용자가 있으니까 사업주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이 연기법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와같은 논리라면 미안하지만 어긋나는 것이 사람은 자연 없는 삶은 없을지 몰라도 자연은 사람 없으면 오히려 더욱 잘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기설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자신의 번뇌를 초극하여 생로병사를 여겨 해하는데 그 목적이 우선 두고 그 지혜와 비가 온 법계로 펼쳐져 나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연기를 보는 자 부처를 본다고 했으니 연기의 세 초인 무명을 타파하는 일 그것이 제일 으뜸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논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위 그림과 같이 아무리 짧은 선분에서도 무한개의 점을 정할 수가 있다. 이들 점을 일일이 짚어 갈 때는 한이 없기 때문이다. 위 역리에서 말하는 언젠까지라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할 때의 '언제까지'는 유한 범위 내에서의 '언제까지'이다. 유한의 논리만을 사용한 희랍인들은 이 역리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미적분학은 '무한과 극한'의 논리를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고정된 목적지 P의 자리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 빚어 설명할 수 있다. ①라는 사람이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P를 향해 걷고 있다. ②가 반의 자리에 당도했을 때는 50미터가 남았다. 또 그 반만큼 당도했을 때는 25미터가 남았고, 또 그 반만큼 갔을 때는 12.5미터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P에 가깝게 접근해 가도 끝내 P에는 항상 일정한 간격이 있어서 끝내 당도할 수 없다.

수행자의 길은 대오의 경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구조를 연상시킨다.

날마다 정진을 거듭하면서 대오의 경지에 수렴되어 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유한의 단계로 나누어 일일이 단계를 따진다면 도저히 대오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출점 유한의 단계로 넘어 무한의 영역, 즉 대오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불교에는 돈점(頓漸) 논쟁이 있다. 돈교(頓敎)는 단계를 차례차례 밟지 않고 단숨에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이며, 점교(漸敎)는 차례로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긴 세월의 수행을 통해서, 대오를 얻게됨을 말한다.

유한이론의 범위 점교와 비슷 무한으로의 비약 있어야 大悟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을 때는 '아름 두 점은 같다'라는 논리이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든지 좁혀져 간다. 처음에는 10m의 거리가 10/2, 10/2, 10/2, ... 10/2^n, ...로 n이 늘어가면 지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는 결과가 된다.

이 사실은 자신의 눈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이 결코 내 눈에는 맞지 않는다는 극적인 표현으로 설명되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 유한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무한의 논리, 즉 '얼마든지 가까워질 때'는 같다고 설명해 준다. 이때 움직이는 ②는 극한점 P에 당도한다고 말한다.

이 논쟁을 새삼 되풀이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나에게 그 유열을 논할 만한 역량도 없다. 그러나 점진적인 진전의 각 단계를 유한의 범위에서 나누어 생각한다면 언젠까지라도 유한의 세계에 머물고만 있을 것이다. 유한의 논리는 곧 분별이며 분별에 머무는 한 대오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교(漸敎)의 입장에서 서도 반드시 어떤 단계에서는 유한에서 무한으로의 비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수행자는 무한의 경지, 곧 극한점에 당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양행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개사의 효험력

책자내용(목차)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명칭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생활풍수의 기본적 개념·생활풍수의 기본요소·생활풍수의 이론적 배경
- 4 팔괘의 심층에 대한 설명
- 5 팔상탑주의 조성원리
- 6 팔상탑주의 종류
- 7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그 효험력
- 8 나침반의 방, 실내배위 관독방법
- 9 팔상탑주 구입방법
- 10 팔상탑주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11 생활속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12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
- 13 음택(산소)풍수
- 14 음택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한 작용과 조성동기 및 산소적용 방법
- 15 산소(묘)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황동관 팔괘 불탑다라니의 처방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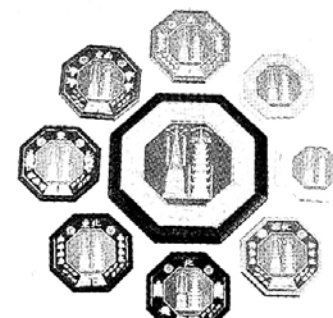
"이 책자를 다 읽고 나면 자신의 운명(運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생활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운이 약한 자를 운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생활풍수처세비법"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관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와 각 8방위별 팔상탑주



- (1) 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 (2) 소재: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 (3) 규격:
 - 총괄팔상탑주: 30x30x3cm
 - 방위별팔상탑주: 15x15x1.5cm
- (4) 의장특허등록: 제211250호
- (5)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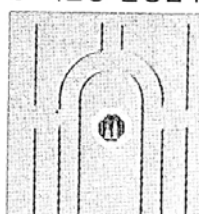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심지어 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 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족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를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계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람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팔상탑주는 스님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특별처방비법이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을 거처야 그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서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드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대문용 팔상탑주



- 규격: 8cm x 8cm
-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 가격: 60,000원

차량용 팔상탑주



- 규격: 5cm x 5cm
-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 가격: 60,000원

◎ 금년부터는 나라살림·회사살림·집안살림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앙이나 악운이 닥치고 행운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건넌대기가 무척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풍수원리에 따라 조성된 12품 팔상탑주는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가게, 상점, 공장 등에 적용하면 풍수적으로 막지 않는 곳을 교정시키고 차단된 기(氣)와 역류되고 있는 운기(運氣)를 균형되도록 조화시키고 기(氣)를 북돋아 줌으로써 불행운을 피하고 또한 최소한으로 예방시키면서 건강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